

〈유충렬전〉의 가족주의와 이원적 세계관

김서윤*

〈차 례〉

1. 서론
2. 〈유충렬전〉에 구현된 가족주의의 지향
3. 〈유충렬전〉의 이원적 세계관과 현실 인식
4. 결론

〈국문초록〉

〈유충렬전〉은 가족의 결속과 번영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한 작품으로 평가받곤 한다. 가족 서사가 국가 서사와 분리된 독자적 위상을 갖는다고 보는 관점은 근대 이후의 폐쇄적 가족주의(혈연 가족주의)에 영향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가족과 국가를 조화로운 공존 관계로 여겼던 전통사회의 개방적 가족주의(국가 가족주의)와 구별된다. 19세기 말 널리 읽힌 〈유충렬전〉의 가족주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 유형의 가족주의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충렬전〉에서는 인물에 따라 두 유형의 가족주의에 대한 서술시각이 다르게 나타난다. 유심이나 강희주와 같은 충신형 인물들을 통해서도 국가 가족주의에 대한 신념이 선양되면서도 그 현실적 무력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다. 장 부인이나 소 부인을 통해서도 혈연 가족주의의 현실적 효용이 부각되면서도 그것이 초래하는 갈등과 분열의 위험성이 경계된다. 두 유형의 인물군은 각각 개방적 국가 가족주의와 폐쇄적 혈연 가족주의의 한계를 반영한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유능한 통치자를 중심으로 국가의 공적 질서가 확립되어 혈연 가족의 생존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백성들 스스로 공적 질서에 대한 신뢰를 혈연에 대한 믿음보다 중시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양 방향의 변화가 함께 일어날 때 두 가지 가족주의의 한계 극복과 상호 통합이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볼

* 경상국립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인물이 주인공 유충렬이다. 유충렬은 혈연인 친부를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국가의 위기 상황에 개입하여 통치 질서를 재건하되, 친부의 구원보다 황제의 명령 수행을 우선하는 공적 태도를 견지한다. 유충렬은 개방적 가족주의의 무력함과 폐쇄적 가족주의의 편협함을 극복하고 양자를 통합하는 인물로서 작품에서 특별한 위상을 차지한다.

한편 이러한 유충렬의 특별함은 그가 천상계와 지상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이원적 정체성을 지닌 인물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유충렬의 지상계 자이는 유심의 아들이자 명나라의 신민이라는, 기존의 근원적 한계 속에 간혀 있는 혈연 및 국가 정체성을 나타낸다. 반면 유충렬의 천상계 자이는 기존의 혈연 및 국가 정체성을 분리하고 변혁하여 새롭게 통합하는 작용을 한다.

<유충렬전>에서 천상계와 지상계의 공존은 현실의 변화를 지향하면서도 기존의 가치를 지속하고자 하는 균형 감각의 산물로 해석된다. 국권 상실의 위기와 혈연에 근거한 정치의 폐단이 가중되던 19세기의 상황에서 지켜내야 할 공동체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상상과 탐색의 결과를 <유충렬전>은 담고 있다.

주제어 유충렬전, 국가 가족주의, 혈연 가족주의, 이원적 세계관, 지속과 변화

1. 서론

<유충렬전>은 외침과 반역으로 인한 국가의 위기 극복 과정이 가족의 이합집산 과정과 긴밀히 맞물려 흥미를 자아내는 작품이다. 전란의 치열함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군담 장면이 독자를 몰입시킬 뿐 아니라, 인물들의 가족애를 감성적으로 서술한 점에서도 대중성을 확보하였다고 평가된다. 천상계와 지상계가 교차하는 신이한 서사세계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작품이기도 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지상계에서 전개되는 가족 서사에 초점을 맞추어 〈유충렬전〉의 주제의식을 도출해 왔다. 전란과 정쟁으로 인한 가족 이산과 유랑의 기억이 남아 있던 조선후기 독자들의 우선적 관심사는 흩어진 가족의 재결합이었을 터이며, 충효라는 지상계의 규범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가족의 회복과 번영을 이끌어내는 현실적 논리가 서사 전개의 설득력을 높여주었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유충렬전〉은 가족 상실과 회복의 과정을 대칭적으로 보여주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서사 전개에서 가족 문제를 초점화하는 주제의식이 드러나며,¹⁾ 흩어진 가족의 재회 문제를 중심으로 서사를 구조화함으로써 하층민들의 현실과 소망을 반영한 대중 소설로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²⁾ 작품이 독자에게 제공하는 체험주의 미학이 여러 계층이 관여하는 가족관계의 확장에서 비롯됨에 주목하여 〈유충렬전〉의 담론적 특질이 논의되기도 하였다.³⁾

한편 이러한 가족 중심주의가 내포하는 작품의 한계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루어졌다. 가족의 문제를 국가의 문제로부터 분리하여 고유한 가치를 부여하는 가족에의 독자성이 작품의 특징이자 한계로 지적된 바 있으며,⁴⁾ 가족주의 감성에 기반을 둔 인물의 감정 표현과 장면 묘사에 압도되어 서사 전개의 합리성이 훼손된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⁵⁾ 또한 가족의 문제를 부각하면서도 정작 가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가족과 국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답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
- 1) 서인석, 「고전소설의 결말구조와 그 세계관: 홍길동전·구운몽·군담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53~61쪽.
 - 2) 박일용, 「〈유충렬전〉의 서사구조와 그 소설사적 의미 재론」, 『고전문학연구』 8, 한국고전문학회, 1993, 279~282쪽.
 - 3) 심우장, 「〈유충렬전〉의 담론 특성과 미학적 의의」, 『관악어문연구』 28,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3, 319~321쪽.
 - 4) 김현양, 「〈유충렬전〉과 가족애」, 『고소설연구』 21, 한국고소설학회, 2006, 317~325쪽.
 - 5) 신재홍, 「〈유충렬전〉의 감성과 가족주의」, 『고전문학과 교육』 2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172~182쪽.

작품의 균열 내지 한계로 지적되었다.⁶⁾

이에 따라 근래에는 가족 서사가 더 상위의 공동체 서사와 어떻게 관련 되는지는 밝히는 방향으로 연구 주제가 새롭게 설정되고 있다. 가족을 위한 복수의 서사가 국가의 정치적 혼란을 해소하는 과정과 중첩되어 공동체 의식을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해석,⁷⁾ 전쟁을 계기로 가족 상실의 고통이 계층 간에 공유되면서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는 과정이 초점화된다는 해석이 그 성과에 해당한다.⁸⁾ 이를 통해 가족 서사가 더 상위의 공동체 서사로 확대되는 원리를 밝힐 수 있게 되었으나, 이러한 확대 과정에서 수반되는 혈연 가족과 국가 공동체의 충돌과 모순에 대해 작품이 어떠한 서술시각을 나타내고 있는지는 여전히 분석이 미진한 상태이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과, 혈연을 초월한 더 큰 공동체인 국가가 공존하기 위한 방안과 그 실현 조건에 대해 <유충렬전>이 제시하는 전망에 대해 좀 더 탐색해 볼 여지가 있다.

<유충렬전>에서 가족 서사와 국가 서사를 구분하는 연구 관점은 국가와 가족,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대립 관계로 보는 오늘날의 사고방식과 연관되어 있다. 전통사회의 유교적 관념은 국가와 가족을 연속적 관계로 파악하며 충효를 서로 모순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왕정국가의 통치 체제가 무너지고 식민지와 독재 정권의 횡포를 연이어 경험하면서 국가의 억압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이 우세해진 까닭이다.⁹⁾ 그러나 국가를 하나의 큰 가족으로 여기고, 신민이 군왕을

6) 김현양(2006), 앞의 논문, 329~331쪽; 신재홍(2015), 위의 논문, 188쪽.

7) 이정원, 「복수의 서사로 읽는 영웅소설 -<유충렬전>과 <조용전>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86, 국어국문학회, 2019, 177~192쪽.

8) 황지현, 「전쟁을 거친 공동체의 재탄생과 회복 서사, <유충렬전>」, 『한국고전연구』 67, 한국고전연구학회, 2024, 320~330쪽.

9) 김동춘, 「유교와 한국의 가족주의 -가족주의는 유교적 가치의 산물인가?」, 『경제와 사회』 55, 비판사회학회, 2002, 107~109쪽 참조. 전통사회와 근대사회에서 가족주의

아버지처럼 섬기는 유교적 세계관 하에서는 가족의 존재 의미가 혈연 집단 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일제강점기에 유교 교육을 받고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던 애국지사들이 국가를 위한 희생을 가족에 대한 배반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가족 전체가 독립운동에 헌신하기도 했음은 과거 가족의 영역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그러므로 〈유충렬전〉에 구현된 가족주의의 성격을 논할 때는 가족에 대한 사고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족주의의 범주를 넓혀, 〈유충렬전〉이 지향하는 가족의식의 실체를 밝히고 작품에서 혈연 가족과 국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작품을 관통하는 이원적 세계관이 가족주의를 형상화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것이다. 지상계 가족의 재결합을 견인하는 동시에 그 존재 위상을 일시적인 것으로 상대화하는 천상계의 존재는 혈연 가족과 국가를 하나로 이어주는 작품의 본질적 요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통해 〈유충렬전〉의 주제의식과 세계관을 보다 정교하게 구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유충렬전〉에 구현된 가족주의의 지향

1) 가족주의의 두 가지 유형

가족주의는 가족이 다른 모든 사회 집단보다 중시되며, 가족의 결속이 개인의 권익보다 우선하여 개인이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어렵고, 이러한 가족의 조직 형태를 더 상위의 사회 조직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고방식을 일컫는다.¹⁰⁾ 이는 혈연 가족의 이익을 다른 모든 사회 집단의 공익보다

가 의미하는 바의 변화와 차이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2장으로 미룬다.

10) 최재석,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현음사, 1994, 27쪽.

앞세운다는 점에서 혈연 이기주의를 뜻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공적 조직에 대해 가족에 준하는 소속감과 헌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혈연을 넘어선 가족 범주의 확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 층위의 혼재는 그 자체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족주의의 복잡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으로,¹¹⁾ 가족주의가 지향하는 바가 혈연 내부로 응집될 수도 있지만 혈연 집단 외부로 확장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가족주의의 상반된 두 지향성은 시대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 왔다. 전통 사회의 유교적 관념 하에서는 공과 사, 충과 효를 연장선상에서 파악하여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방식이 자연스럽게 국가 층위의 군신 관계로 확장될 수 있다고 여겼다.¹²⁾ 이는 ‘천하일가(天下一家)’ 관념을 근간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개별 가족의 공생을 도모하는 관점이다.¹³⁾ 자녀가 아버지를 섬기듯 신민이 군주를 섬기면, 군주는 선치를 베풀어 신민을 고무 이롭게 한다는 이상이 투영된 관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사회의 가족주의는 유교의 충효 이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반면 근대 이후 국가가 개인의 권익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 되면서 개인이 혈연 가족의 유대에 기대어 생존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가족의 사익은 국가의 공익과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조선 후기 들어 국가의 공적 통치권이 약화되면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단절되고, 관료집단에서 분리된 사림집단이 혈연을 중심으로 결집하기 시작하면서 가족의 절대화가 가속화되었던 것이다.¹⁴⁾ 현재에도 통용되는 이 유형의 가족주의는 혈연

11) 백광렬·이상직·사사노 미사에, 「한국의 가족주의와 가족 관념: ‘사회결합’론의 관점」, 『한국사회학』 52(4), 한국사회학회, 2018, 134쪽.

12) 김경호, 「한국사회의 ‘가족주의’ 담론과 ‘유교 가족주의’에 대한 성찰」, 『민족문화연구』 8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0, 402~403쪽.

13) 김경호(2020), 위의 논문, 398쪽.

14) 최우영, 「조선시대 국가 사회관계의 변화와 가족주의의 기원」, 『가족과 문화』 18(1), 한국가족학회, 2006, 12~25쪽.

이외에 신뢰할 만한 공적 집단이 형성되지 못한 근대 이후의 사회·역사적 상황에 기인한다.

전통사회의 가족주의가 가족 유대관계를 국가라는 상위집단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보는 이념 중심적 관점이라면, 근대 이후의 가족주의는 국가와 단절된 혈연 가족의 생존과 번영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상황 중심적 관점이다. 본고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가족주의를 각각 다른 용어로 지칭하여, 전자를 국가 가족주의(개방적 가족주의)로 명명하고 후자를 혈연 가족주의(폐쇄적 가족주의)로 명명하고자 한다.¹⁵⁾

이렇게 용어를 구분하면, 〈유충렬전〉에서 가족 서사가 국가 서사와 분리된 독자적 위상을 갖는다고 보는 관점은 근대적 기준의 혈연 가족주의에 영향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유충렬전〉에는 국가 층위의 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서술시각도 함께 존재한다. 혈연 가족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국가 가족주의로 나아가고자 하는 흐름도 작품 속에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다.¹⁶⁾ 〈유충렬전〉에서 가족주의에 대한

15) 서유석, 「판소리 서사에 나타나는 가족주의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6,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23, 16~22쪽에서는 가족주의를 확장된 가족주의와 보편적 가족주의로 나누어, 가문소설이 전자를 지향한다면 판소리계 소설은 후자를 주로 구현한다고 설명하였다. 전자는 가족의 이익을 위한 국가·사회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관점으로서 혈연 집단의 외적 팽창을 추구하며, 후자는 가족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긍정하는 관점으로서 혈연 집단 내부의 공동운명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두 유형의 가족주의는 둘 다 혈연 가족을 전제하므로 본고와는 다루는 범위가 다르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편적 가족주의는 혈연 가족주의에 가깝고, 확장된 가족주의는 국가 가족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판소리계 소설이 전자를, 가문소설이 후자를 지향한다면 〈유충렬전〉과 같은 영웅소설은 둘을 포괄하면서 양자 간의 모순과 균열을 문제시한다는 것이 본고의 관점이다.

16) 앞서 살펴본 이정원(2019)과 황지현(2024) 이전에, 이미 이상구(1995)에서 〈유충렬전〉이 가족 회복 서사에 그치지 않으며 국가 공동체의 재건 가능성에 대한 19세기 후반 독자들의 현실 인식과 국가 위기에 대한 대응 의지를 반영한다고 해석하였다. 이상구, 「〈유충렬전〉의 갈등 구조와 현실 인식」, 『어문논집』 34,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5 참조.

고찰이 혈연 가족주의와 국가 가족주의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탐색을 중심으로 심화되어야 할 이유이다.

2) 〈유충렬전〉에 구현된 가족주의의 유형과 서술시각

(1) 국가 가족주의의 무력함에 대한 비판

이상의 논점을 염두에 두고 〈유충렬전〉의 등장인물들이 지향하는 가족주의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다소 도식적이기는 하지만 인물군을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유형은 국가 가족주의를 지향하는 유심과 강희주다. 이들은 고위 관료 출신으로 황제에게 충심으로 직간하는 것을 자신의 책무로 여긴다. 강희주는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을 예상하면서도 황제의 잘못을 간언하며, 유심은 유배지에서 생존을 위협받는 가운데서도 국가에 대한 충심을 지킬 뿐 아니라 혈연을 이용하여 자신을 굴복시키려 하는 적국의 계략에 저항한다.

(가-1) 이씨의 영능 쌍의서 사난 강희주라 허난 직상이 잇스되 소년동과허야 승상 벼살허더니 간신의 참소를 만나 퇴사허야 고흥의 도라와쁘나 일단 충심이 국가를 잊지 못허야 미양 천자 오결허난 일이 이쁘면 상소허야 구완허니 조정 이 그 직간을 썬려허되 그중의 정헌담과 최일귀가 가장 미워허더니 (...) 승상이 현서를 엮고 말연의 근심이 업스나 다만 유주부 간신의 희를 보와 명나수의 죽으를 생각허니 분심이 직발허야 나라의 글을 울여 유주부를 설원코자 허야 직시 황성을 가라 허거늘 유심이 말유허야 왈 디인의 말삼은 감격허으나 간신이 만조허와 국권을 아서쁘니 천자 상소를 듯지 안이할가 허난이다 승상이 불청허고 급피 횡장을 차려 황성으로 올라가 퇴직상 권공달의 집의 스쳐를 정허고 상소를 지여 승지를 불너 천자게 올리라 허더라 (上21-24)

(가-2) 이씨 정헌담이 용상의 늪피 안자 골용포를 정이 입고 빅관이 시위허야

유심을 자바다가 게흐의 업지르고 달너여 허난 말리 그디 마암이 흐 고집흐기로 만리 연경의 수년을 고상흐니 너 마음이 불안흐지라 이제는 짐이 천자 되어 빅 관을 거나리더니 그디 아달이 아직 미거흐야 천위를 모르고 죽은 명제를 살이라고 우리 군사를 침노흐니 죄상을 논지컨디 진직 죽일 거시로디 그디를 싱각흐야 아직 살여 두어써니 종시 흥복지 안이흐기로 그디를 다려다가 자식의게 편지나 흐야 부자 흥기 만나 나를 도으면 고관디작은 윈디로 홀 거스니 부디 스양치 말나 유주부 이 말을 듣고 분심이 텅장흐야 눈으 부릅쓰고 쭉골서 안지며 왈 네 이놈 경흐담야 천지도 무심잔코 일월도 두렵지 안이흐난야 나는 자식도 업고 자식이 설혹 잇스들 우리 천자를 모시고 너 갓튼 역적놈을 죽이라 흐난디 그 아비 무삼 일노 성군를 저바리고 역적을 도오라 흐며 너 자식은 식로이 광디흐 천지간의 삼척동자도 네 고기를 먹고자 흐나니 흐믈며 너 아달은 옥황이 껌지흐샤 남경을 도오라 흐여쓰니 만고역적 너 갓튼 놈을 섬길 뜻흐야 (下10)

(가-1)에서 알 수 있듯이 강희주는 정한담에게 이미 회유된 황제가 자신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상소를 올려 고난을 자초한다. 황제는 정한담의 참언에 따라 강희주를 처형하고 그 가족을 멸하러 하지만, 강희주는 ‘죽은 혼백이라도 용봉 비간을 벗어나 천추에 영화될 것(上 25)’이라 다짐하며 뜻을 굽히지 않는다. 이후 강희주는 유배에 처해지고, 강희주의 딸과 사위는 정적의 박해를 피해 흩어지며 부인은 자결한다.

(가-2)에서 유심은 아들을 생각하여 그만 항복하라는 정한담의 유혹에 대해 자신은 자식이 없다고까지 답할 정도로 혈연에 초연한 모습을 보인다. 나아가 자신의 아들을 포함해 모든 백성들이 정한담의 역모를 부정한다고 말하며 오히려 정한담을 꾸짖는데, 이 또한 혈육을 보전하는 데 연연하지 않으며 백성과 나라 전체의 평안을 더 중시하는 유심의 태도를 보여 준다.

유심과 강희주는 마치 자녀가 아버지를 대하듯 황제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진심을 다하는데, 이는 부자 관계가 천륜으로 여겨지듯 군신 관계도

그러해야 한다고 여기는 태도라는 점에서 국가 가족주의를 실천한 것이다. 이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혈연 가족에 대한 유대감과 구별되지 않는다. 이러한 유심과 강희주가 강직함은 <유충렬전>에서 긍정적으로 형상화된다. 이들은 결국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황제의 사죄를 받으며 유배지에서의 억울한 고난을 보상받는다. 적어도 신념의 층위에서는 국가 가족주의를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이 작품의 서술시각인 것이다.

그러나 유심과 강희주가 본래의 자리로 복귀하고 고난을 보상받을 수 있었던 것은 혈연 가족의 도움에 힘입은 것이다. 유충렬이 아버지와 장인의 거취를 탐색하여 찾아가지 않았다면 유심과 강희주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나-1)과 (나-2)의 장면에서 자신을 구하러 온 유충렬을 만날 때 유심과 강희주의 처지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보면, 국가 가족주의라는 이상을 현실화하기에는 인물들의 능력과 처지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국가 가족주의라는 인물의 신념 자체는 긍정하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혈연 가족주의와의 결합을 비롯해 보다 현실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작품의 서술시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나-1) 이씨 유주부 도적의게 잡혀 갔다가 항복지 안이흐다 호고 피골상연 약흔 몸의 형장을 만이 맞고 복희상 무인지에 음식이 업셔쁘니 기갈를 어이호리 미구의 운명호게 되어져니 이씨 원슈 순식간의 달여드러 보니 토굴를 집피파고 험흔 수목으로 사면을 둘러싸고 집자리 흔 입 우의 문 밧기 수직흔 군사흔 명만 두어 삼순구식으로 구떡밥을 주난지라 이 거동을 보고 업더지며 투고 버셔 싸의 노코 사면 수목을 헤치고 토굴 문 밧기 복지호야 옛자오디 디명국 남경 동성문 너 사난 충열언 도적을 잡아 평난호고 황후 티후 티자를 모셔 이리 왔난이다 이씨 유주부 귀온이 쇠진호야 인사를 바리고 잠을 집피 드러져니 몽중의 얼푸시 드르니 충열이란 말을 드르미 천리 박기셔 나난 듯호야 꿈을 썬여 안지며 왈 네가 귀신인야 이 싸은 무인지경이라 물귀신이 만흔 고지라 어이 알

고 예 와난야 통곡호여 가삼을 두다리다가 기가 막켜 다시 왈 네가 귀신인야 슝름인야 (...) (下24)

(나-2) 승상과 조낭자 호왕이 죽이라고 찻난가 텃경호야 괴절호난지라 윈슈 밧비 드러 강승상 전의 옛자오디 정신을 진정호흡소셔 소자는 회사정의 만나던 유충렬이읍더니 텃경국 도원슈 되야 남적을 흠몰호고 호왕을 잡고 도스를 사로 자바 이곳디 와난이다 승상이 혼몽중의 충열이라 말을 듯고 벌떡 이러 안저 보니 과연 충열이 분명하다 왈각 달여드러 손을 잡고 통곡호며 호난 말리야 엇지 다 충양홀가(下33)

국가 가족주의에 대한 회의적 시선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인물군은 조 낭자 가족이다. (다-1)에서 조 낭자는 전란 중 가달국에 끌려간 뒤 같은 명나라 사람 강희주를 친아버지처럼 따르며 의지하는데, 이러한 조 낭자의 태도는 한 나라의 백성들이 서로 가족처럼 여기고 돕는다는 점에서 국가 가족주의적 발상과 연결된다. 또 조 낭자의 형제는 유충렬이 이끄는 명나라 황군 편에서 참전하였다가 유충렬이 승전한 덕분에 살아남는데, 이에 조 낭자의 아버지가 ‘내 아들은 장군님 덕분에 살았으니 장군님 자식이나 마찬가지로’라 치하하며 유충렬에 대해 가족의식을 나타내는 (다-2)의 장면도 <유충렬전>이 지향하는 국가 가족주의의 관점을 보여준다.

(다-1) 강승상이 되놈의게 잡혀가서 혐악이 극심호되 종시 항복지 안이호고 진육을 무수이 호니 호왕이 텃로호야 미구의 죽이려 호더니 슝박기 유원슈 드러오미 죽이지 못호고 점옥의 가두고 주려죽게 호난지라 호왕이 남경의셔 다려간 게집 호나히 되놈의게 종시 훼손치 안이호고 일싱 강승상을 붓들고 썬나지 안이호고 불피풍우호고 밤마다 축원호야 왈 우리 나라 유원슈 아셔 와서 남적을 흠몰호고 본국 슝름을 살어니여 부모 얼굴을 다시 보게 호흡소셔 이러타시 축슈호더니 슝밧기 강승상을 옥중의 가두니 호가지로 썬러가셔 쥬야 호튼호지

라 (下32)

(다-2) 백발 노인이 죽장을 잡고 써러진 감토를 쓰고 어린 아히 압세우고 동편 골목의 나오면서 술 혼 잔 바다 들고 안주는 낙엽의 싸서 손자에게 들고 괴염괴염 괴여나와 원슈 전의 빅비치스하며 만만세를 불너 왈 소인 도성문 너 사슴더니 삼덕독신으로 소인의게 밋쳐 삼자일녀를 나하 노코 귀이 질너 제 몸이 장성터니 만고 역적 정흔담이 도성을 쳐파하고 용상의 늪피 안져 자충 천자하고 만민을 도탄홀 제 소인의 자식 두를 군사의 충슈하야 전장의 싸오다가 자식 혼나를 죽여서니 옥황이 남경을 도으사 장군임을 남경의 점지하야 도적을 치라 하고 진중의 달여드러 격장 정문걸을 반 홉의 배혀들고 천자를 구완하시거늘 소인의 싯터 자식을 성중의 두었다가은 정흔담의게 켜일 듯하야 준공 조경만의게 야간도망하야 장군임 진중의 보너고 북두칠성 전의 일연 삼빅육십일의 밤마다 축수하며 우리나라 장수님이 승전하게 혼소셔 이려타시 축수혼옵더니 장군임의 심을 입어 명진 군스는 혼나도 상치 안코 와졌기로 소인의 싯터 자식이 사라나서 이 손자를 두어쁘니 이놈은 장군임 자식과 다르미 엄난지라 이제난 소인이 죽어도 빅골엄토홀 자식이 잇고 선행회화 밋들 손자 잇사오니 이난 모도 다 장군임의 덕이오미 소인이 죽을 날이 머지 안이혼은지라 다만 술 혼 잔을 장군님 전의 올이나니 만세무량혼소셔 이제 죽어도 여흔이 업실가하야 손자를 이끌고 왔난이다 (下27)

조 낭자는 하층민으로 묘사되는 백발 노인의 딸이지만 유충렬이 회수에 서 어머니 제사를 지낼 때 집사 역할을 하고, 강 낭자를 구해 황성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는 강 낭자와 나란히 옥교를 타는 등 강희주의 친딸과 다름없는 예우를 받는다. 또 작품 말미에서는 ‘남국에 잡혀가 강승상을 부모 같이 섬기던 여자(下47)’로 지칭되며 남평왕 유충렬의 우부인에 봉해진다. 이는 조 낭자가 계층의 격차를 넘어 유충렬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온 나라가 한 가족처럼 화합할 수 있다는 국가 가족주의적 발상을 나타낸다.

그런데 조 낭자 가족의 말과 행동은 국가 가족주의와 맞닿아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유심이나 강희주와 다르다. 하나는 하층민인 이들의 경우 유심이나 강희주처럼 먼저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려는 의지를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혈연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반가움이 국가 가족주의적 태도를 발현하는 조건이 된다는 점이다. 전란 도중 외국에 인질로 잡혀가거나 군에 징발된 위기 상황에서 조 낭자의 가족은 혈연을 다시 만나겠다는 의지로 버틴다. 조 낭자의 경우 그러한 의지를 다잡기 위해 같은 명나라 사람끼리 가족의식을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 낭자의 부친 또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남은 데 대한 기쁨이 컸기에 혈육을 지켜준 장수 유충렬에게 친밀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 낭자 가족의 국가 가족주의는 유심이나 강희주와 같은 지배층과 구별되며, 민중에게 지배층과 같이 무조건적으로 국가 가족주의를 따를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작품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혈연 가족주의의 편협함에 대한 경계

〈유충렬전〉 인물군의 둘째 유형은 주로 여성 인물들이다. 유심의 부인 장씨, 강희주의 부인 소씨를 비롯한 여성 인물들은 대체로 혈연 가족주의에 충실하다. 장 부인과 소 부인은 국가의 안위에 대해 별다른 견해를 표명하는 일이 없다. 이들은 다만 남편을 만날 수 없게 되고 자녀를 보호할 수 없게 되자 절망하여 목숨을 버리려 하는 연약한 아내이자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려질 뿐이다. (라-1)과 (라-2)에서 각각 장 부인과 소 부인이 혈연 가족이 해체된 현실에 좌절하여 살아갈 의지를 잃는 장면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라-1) 연경을 가자 하니 연경이 사만오천육백 나라 여자의 일신이 천산만수

를 엇지 가며 엇날리 못하야서 이러흔 변이 당흔디 연경으로 가다가는 니 신세
 해절하고 니 목숨 살 수 업것다 차라리 이곳디서 죽어 빅골이나 고향으로 흘러
 갈가 나문 혼백이라도 황성을 다시 보리라 헝장을 쓸너 옥흙을 너여 노코 비단
 수건으로 주홍글자를 삭여 쓰되 모년 모월 모일의 디명국 동성문 너의 사난 유
 충열 모 장씨난 옥흙을 니 아달 충열으게 전하노라 죽은 혼백이라도 바다보라
 자자이 식여 수건으로 옥흙을 미여 물속의 너코 디싱통곡하며 초미를 무릅쓰고
 물의 썩져 죽으려 할 제 (上19)

(라-2) 이씨 부인이 남자의 신세 생각해니 정신이 아득하야 이제 비록 도망
 하야 와쓰나 청춘여자를 다리고 어디로 가 살며 혹 살아난들 승상과 현서를 이
 별하고 살아서 무엇하리 차라리 이 물의 썩져 죽으리라 하고 남자를 속여 뒤
 보낸 채하고 급피 청수의 가 신을 버서 물가의 늦코 청강 녹수 집꾼 물의 썩여드
 니 (上28)

조카인 강희주가 사형에 처해지자 황제에게 탄원하여 유배형으로 감형
 하도록 청하는 태후 또한 이 유형에 속한다. 결국 태후는 며느리, 손자와
 함께 조카사위 유충렬의 도움을 받아 구출되는데, 이는 혈연 가족만이 믿
 고 의지할 대상이기에 평소 서로 도와야 한다는 서술시각이 반영된 인물
 간 관계 설정이라 볼 수 있다. 장 부인 또한 남편의 종질 이 처사의 집에
 의탁하여 화를 피하는 등 혈연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평안을 찾는다.

그러나 이들 둘째 유형의 인물들을 위기에 처하게 하는 적대 인물들 역
 시 가족 단위로 움직인다. 예컨대 회수에서 납치당했다가 가까스로 도망친
 장 부인을 다시 마철에게 돌려보내려 한 노구는 마철의 당숙모로, 자신의
 아들을 마철에게 보내 장 부인을 데려가라고 기별한다. (마)에서 노구 모자
 는 철저히 일가인 마철의 편에서 장 부인을 곤경에 처하게 하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다.

(마) 부인이 종일토록 hing역의 기운이 곤하야 (...) 창망흔 달빛 속의 수간초옥 이 뵈이거늘 반겨 급피 드러가니 시문의 기 지스며 혼 노구 문 맞기 나오거늘 노구 보고 예를 혼디 노구 답예하고 방으로 드러가자 혼니 부인이 드러가 안지며 살펴보니 사면의 너복이 엷고 남북만 걸여잇고 쏘흔 것티 방으로서 남정 소릭 나거늘 심신이 불안하여 좌불안석이라 석반을 먹은 후의 노구 할미 문왈 그 디는 누 집 부인이관디 엇지 혼자 이고디 왔난잇가 부인이 디왈 나난 본디 황성 스람으로 친정의 갔다가 휘상의셔 수적을 맞나 명을 도망하야 이고디 왔난이다 노구 이 말 듯고 젓방으로 드러가 자식다려 일너 왈 저 녀인의 말을 드르니 가장 고이하도다 수일 전의 드르니 석장동 당질눔이 회수 사공하다가 금일 초의 휘상의셔 혼 부인을 어더 퍽년 동거코자 혼다더니 지 녀인의 말을 드르니 수적을 만나 도망하여 왔다 혼니 정영코 당질눔이 어든 계집이라 밧비 이 밤 삼경의 석장동을 득달하야 마철을 보고 다려다가 이 계집 일치 말나 혼디 노구 자식이 이 말을 듯고 급피 후원의 드러가 말 혼 필 너여 타고 밧비 취질하여 나셔니 본디 이 말은 철니마라 순식간의 석장동의 당도하얏난지라 (上16-17)

소 부인의 경우, 남편의 은혜를 입은 적이 있는 장한의 아들이 몰래 풀어 주어 관비 신세를 면하지만 결국 갈 곳이 없음에 절망하여 자결하고 만다. 아버지의 은인을 도우려 하였던 이들의 호의가 도리어 은인의 부인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셈이다. 만약 소 부인이 관비의 신분으로나마 살아남았다면 훗날 남편과 딸을 다시 만날 수도 있었을 테지만 장한 부자의 개입으로 그러한 가능성은 차단되었다. (마)에서 알 수 있듯이 장한은 아버지의 뜻에 따르려다가 스스로 위태로워졌을 뿐 아니라, 소 부인에게도 자기 입장에서 호의를 베풀었을 뿐 결과적으로는 더 큰 절망을 초래하고 말았다. 아버지의 은혜를 대신 갚아야 한다는 혈육 간 연대의식에 치중한 나머지, 장한은 소 부인의 상황을 섬세히 헤아려 합당한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바) 소씨와 낭자 속절업시 잡피 올라갈 제 청수의 다다르니 일모셔산이라

직실의 드러 잘 제 이씨 금부나줄 중의 장흔이라 혼난 군사 전일 강승상 배살할
 썩에 장한의 부친이 승상부 서리로서 득죄하야 거의 죽게 되어씨니 강승상이
 구하야 살인 고로 장흔의 부자 그 은혜를 주야 생각하더니 이씨를 당하되 불상
 흥물 이기지 못하야 다른 군사 몰으게 실패 우더니 그날 밤 삼경의 다른 군사
 다 잠을 집피 드렸거늘 가만이 부인 자난 방문 압푸 나아가니 이씨 부인과 낭자
 서로 부들고 울며 잠을 안이 자거늘 문 밝기 지침하고 부인을 부르디 부인이
 놀너여 문을 열고 보니 장한이 복지하야 가만이 었자오되 소인은 금부나장이읍
 더니 전일 덕감 벼살할 썩에 소인의 아버 나라의 득죄하야 죽게 되었삽더니 덕
 감이 살아시기로 그 은혜 골수의 스뭇치와 갑기를 바리더니 이씨를 당하야 소
 인이 었지 무심하오릿가 브릭읍건디 부인은 너무 염애ㅁ읍소셔 이날 밤의 명을
 도망하오시면 그 뒤는 소인이 당할 거스니 조금도 염애 마음시고 도망하여 살
 기를 브릭소셔 부인이 이 말을 듯고 마음이 조금 풀이여 낭자를 다리고 장흔을
 썩라 주점 밝기 나서니 밤이 임무 삼경이라 인적이 고요하거늘 동산을 너머 십
 니를 가니 청수의 다달나 장흔이 흐직하고 왈 부인과 낭자는 이 물가의 썩져
 죽은 피를 하고 가읍시면 후환이 업실 거스니 부디 사라나 후스를 보사이다 하
 고 가거늘 이씨 부인이 낭자의 신세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하야 이제 비록 도망
 하야 와쓰나 청춘여자를 다리고 어디로 가 살며 혹 살아난들 승상과 현서를 이
 별하고 살아서 무엇하리 차라리 이 물의 썩져 죽으리라 하고 낭자를 속여 뒤
 보난 채하고 급피 청수의 가 신을 버서 물가의 늦코 청강 녹수 집푼 물의 뿌여드
 니 (上27-28)

한편 소 부인의 딸인 강 낭자는 영릉촌 관비 모녀와 함께 지내는데, 관비
 의 딸 연심이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강 낭자를 보호해 준 덕분에
 강 낭자는 정절을 지켜 유충렬과 떳떳이 재회할 수 있었다. 강 낭자에게는
 연심 모녀의 유대 관계가 굳건하지 못했던 것이 도리어 도움이 되었던 셈
 이다. 이 유형의 인물들은 혈연 가족의 존재 연관에 의지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고통받기도 하는데, 이는 <유충렬전>의 서술시각이 혈연 가족주의
 를 무조건 긍정하는 데 있지 않음을 말해준다.

이 유형의 인물들은 혈연 가족주의의 현실적 영향력을 긍정과 부정의 양면에 걸쳐 보여준다. 부자·형제·모녀의 강한 유대는 내부의 구성원들을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외부에 존재하는 다른 가족의 삶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철 부자와 장한 부자는 자기 혈연과의 일체감만 투철할 뿐 타인의 처지와 감정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였기에 자신들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를 성찰하지 못한다. 장 부인을 납치하여 유충렬과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정한담의 역모 수행을 돕는 일임을 성찰하지 못한 마철은 결국 장 부인을 놓친 억울함에 사로잡혀 그의 아들 유충렬과 대적하는 가달왕의 편에 서는데, 이때 마철의 형제들도 만형의 편에 가담함으로써 삼형제 모두가 명나라에 대한 역모자가 된다. 장한의 아들 또한 황명을 어기고 소 부인을 몰래 호송에서 빼내어 도망치게 만드는 것이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로서 고관의 아내인 소 부인의 처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소 부인의 신세를 도리어 그르치고 만다. 국가의 공적 질서에 연결되어 있지 못한 이들의 혈연 가족주의는 결국 스스로 모순에 처한다. 마철의 형제들은 함께 전사하였고, 장한의 아들은 아버지 은인의 부인을 죽게 만들고 스스로도 금부나졸의 임무를 여겨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이처럼 여성 인물들과 이들의 적대 인물들을 통해 드러나는, 혈연 가족주의에 대한 <유충렬전>의 서술시각은 비판적이다. 혈연은 고난을 견딜 버팀목이 되어 주기도 하지만, 혈연 집단 내부의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는 맹목성은 타인과 자신의 삶을 모두 파괴할 수도 있음을 이 유형의 인물군을 통해 경계하는 것이다.

첫째 유형의 인물군을 통해 국가 가족주의의 한계가 부각된다면, 둘째 유형의 인물군을 통해서도 혈연 가족주의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드러난다. 두 유형의 인물군은 각각 국가 가족주의와 혈연 가족주의의 한계를 보여준다. 통치자의 자질이 부족하며 국가가 신뢰할 만한 통치 질서를 갖추고 있

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 가족주의의 이상만을 따르는 것은 무모한 선택이 될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혈연 집단의 내부 유대에만 고착될 경우 타자를 파멸시키고 스스로도 자멸하기 쉽다는 것이 <유충렬전>의 시각인 것이다. 국가에 대한 헌신이 혈연의 안위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혈연에 대한 애착이 국가 질서에 대한 존중으로 확장되지 못하는 한, 두 가지 유형의 가족주의는 서로 결합되지 못한 채 괴리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

(3) 국가 가족주의와 혈연 가족주의의 상보적 통합 지향

셋째 유형에 속하는 유충렬은 앞의 두 유형의 인물군을 통해 드러난 국가와 가족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내는 인물이다. 국가 가족주의의 한계가 유능한 통치자를 중심으로 하는 통치 질서의 부재 때문이며 혈연 가족주의의 한계가 공적 질서에 대한 피통치자의 신뢰 결여 때문이라면, 그 해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탁월한 능력을 갖춘 통치자 휘하에서 국가의 공적 체제가 안정되어 혈연 가족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백성들 스스로 혈연에 편향된 행위를 억제하고 국가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여 국가의 공적 질서에 권위에 부여하는 것이다. 양 방향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날 때 두 가지 유형의 가족주의는 통합적으로 지양될 수 있다. 유충렬은 바로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유충렬은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여 거듭 승진함으로써 무너진 국가를 다시 세워 조 낭자 부녀를 비롯한 백성들이 혈연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하며, 혈연인 친부를 구하는 것보다 국가의 수장인 황제의 명령에 따라 태자와 태후를 구원하는 임무를 우선 수행하는 공변된 태도를 취함으로써 국가의식의 본을 보인다. 이로써 유충렬은 국가 가족주의의 무력함과 혈연 가족주의의 편협함을 극복하고 양자를 상보적으로 통합한다. 이는 그가 강력한 통치권에 기반한 국가 질서를 도입함으로써 첫째 유형의 인물들이 지향하는 맹목적 국가주의를 발전적으로 지양하는 동시에, 자기 혈연에 대

한 애착을 다른 혈연 가족들에 대한 공감으로 전이하여 공적 책무 수행의 동력으로 삼음으로써 둘째 유형의 인물들이 지향하는 무조건적 혈연주의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기에 유충렬은 첫째 유형과 둘째 유형의 인물들에게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친다. 국가 가족주의에 헌신하는 첫째 유형의 인물들에게는 혈연과 재회하는 보답을 받게 하며, 혈연 가족주의에 경도된 둘째 유형의 인물들에게는 국가에 기여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전자의 예로는 (사-1)에서 아들을 황군에 보내 싸우게 조 남자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딸까지도 되찾게 한 것을 들 수 있다. 후자의 예로는 (사-2)에서 장 부인이 아들을 그리워하며 보낸 옥함에서 나온 물건들로 무장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한 전투에 출전할 준비를 갖추는 것을 들 수 있다.

(사-1) 이씨 남국의 잡피 가 강승상을 부모갓치 섬기던 여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술 흥 잔 바다 들고 원슈 전의 자레하던 노인의 딸이라 그 노인을 불러 상면한 후의 조남자로 남평왕의 우부인을 봉하고 그 오리비로 충용디장을 삼아 그 아버를 봉양하게 하니 (下47)

(사-2) 노승이 웃고 벽장을 열고 옥함을 너어노으며 왈, 옥함은 용궁 조화거니와 옥함 쥔민 수건은 엇더한 스름의 수적인지 즈세이 보라 유상이 의심하야 옥함을 살펴보니 남경 도원슈 유충렬은 기탁이라 금자로 삭여 잇고 쥔민 수건을 쥔너 보니 모년 모월 모일의 남경 동성문 너의 스는 충렬의 모친 장부인은 너 이달 충렬에게 부치노라 하여씨늘 충렬이 수건과 옥함을 부들고 방성통곡하거늘 노승이 위로 왈 소승이 수년 전의 절 중창 회주로 변양 회수의 다다르니 기이한 오식 구름이 이 수건의 덩퍼거늘 밧비 가서 보니 옥함이 물가의 노얏거늘 입자를 주라 하고 갖다 간슈하엿더니 금일노 불진티 상공의 전장크계가 옥함 속의 잇난가 한난이다 (...) 우썩을 여러 노으니 빈틈업시 들어씨늘 보니 굵주흔 별과 장검 하나 칙흔 권이 드럿거늘 투고를 보니 비금비옥이라 광쥔 찬란한

야 안치를 쏘이난 중의 속을 살펴보니 금자로 일광주라 삭여 잇고 금옷을 보니 용궁 조화 적실하다 무어시로 만든 줄 모를네라 옷깃 밋딕 금자로 삭여 잇고 장검은 노어쓰되 두미가 업난지라 신화경을 폐여 노코 칼 썬 법을 보니 갑주 를 입은 후의 신화경 일편을 보고 찬상 디장성을 세 번 보거든 살린 칼이 절노 폐여 변화 무궁할지라 하엿거늘 (上37-38)

위의 두 장면은 유충렬의 서사적 역할이 국가 가족주의와 혈연 가족주의 중 한쪽에 치우친 인물군 간의 괴리를 메우고 양자를 매개하는 데 있음을 보인다. 이러한 유충렬이 중심인물의 자리를 차지한 데서, 두 유형의 가족주의가 안정적으로 통합되어 어느 한쪽을 따르는 행위가 다른 쪽에 대해서도 긍정적 영향을 불러오는 이상적 상황이 <유충렬전>이 지향하는 가족주의임을 알 수 있다.

유충렬이 강희주의 딸과 혼인함으로써 태후의 손녀사위가 되는, 그리하여 군신 관계가 혈연 관계 안에 포함되는 구도도 같은 맥락에서 그 뜻을 음미해 봄 직하다. 유충렬 가족은 강희주 가족을 통해 황제의 가족과 혈연으로 연결되어 국가 차원의 혈연 가족을 형성한다. 이후 유충렬은 조 낭자와도 혼인함으로써 기층 민중의 가족과 황실 가족도 혈연으로 연결된다. 유충렬을 구심점으로 삼아 국가의 여러 계층이 혈연으로 결합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혈연 가족’의 결성은 자칫하면 이름 없는 민중이 지배층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변질될 우려를 안고 있지만, 아들이자 신하이면서도 아버지와 황제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충렬의 존재를 구심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우려는 불식된다. 아들이 아버지를, 신하가 황제를 능가하는 집단의 형태는 권력 위계에 대한 변혁적 구상을 내포한다. 혈연 가족에서든 국가에서든, 권력 구조의 아래에 위치한 구성원을 주체로 내세움으로써 군신과 부자 관계를 수평적으로 자리매김하기 때문이다. 황제가 아닌 태자가 성군의 자질을 지닌 것으로 설정된 것도

이러한 〈유충렬전〉의 변혁적 주제의식과 상통한다.¹⁷⁾

한편 유충렬과 대조되는 인물은 국가에서도 혈연 집단에서도 명확한 자기 자리를 갖지 못한 정한담이다. 〈유충렬전〉에서 정한담은 가족주의와 가장 거리가 먼 인물이다. 외적과 결탁하여 반역을 일으킬 만큼 국가에 대한 소속감도 희미하며, 혈연 가족으로서의 정체성도 불분명하다. 그는 명나라 세록지신인 정종옥의 아들로 소개되지만 아버지나 형제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또 정한담은 자녀의 유무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장익성전〉이나 〈황운전〉에서 악역들을 묶어주는 친형제 관계조차도 최일귀와의 정치적 동료 관계로 대체되어 있다. 정한담은 오직 정치적 욕망으로만 표상되는 인물로, 정치적 야심은 강하지만 그 동력에 해당하는 국가나 혈연 가족에 대한 소속감은 전무하다.

이처럼 국가 가족주의와도, 혈연 가족주의와도 거리가 먼 정한담이 작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인물로 형상화되는 것은 공동체를 저버리고 오직 개인의 능력과 야망으로만 추진되는 사회 변화에 대한 거부감의 표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불합리한 국면들이 있을지라도 가족과 국가에 헌신하면서 세계를 바꾸어 나가는 유충렬과는 달리, 정한담은 철저히 냉정한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 사태가 불리해지자 호왕이 정한담을 배반하고 옥관도사가 다시 호왕을 배신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유형의 인물들은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기 이익에 따라 독자적으로 행동한다.

정한담은 유능한 패권자의 자질을 갖춘 데다가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17) 이 점에서 〈유충렬전〉이 지향하는 국가-혈연 가족은 천황제 가국주의 등이 표방하는 전체주의 국가와 구별된다. 전체주의가 강력한 공권력이 작동하는 상하 위계 체제 하에서 개인을 국가와 동일시하는 집단주의의 일종이라면, 가족주의는 일종의 관계주의로서 국가의 상하 계층이 가족적 유대관계에 충실한 상호적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고소설이 지향하는 관계주의의 특징에 대해서는 김서운, 「고소설의 이원적 세계관과 관계주의 문화」, 『선정어문』 5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22, 38~39쪽 참조.

독립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에서 유약한 황제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운 통치자로 수궁되지 못하는 것은 <유충렬전>이 지향하는 바가 무조건적인 현실 변혁에만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국가와 혈연의 유대를 소중히 보존하면서 양자를 통합적으로 지양해 나가는 점진적 변화를 작품은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3. <유충렬전>의 이원적 세계관과 현실 인식

<유충렬전>에서 천상계의 개입은 셋째 유형의 인물인 유충렬에게 집중된다. 유충렬에 대한 천상계의 개입은 태몽 화소와 도술 화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태몽 화소는 유충렬이 천상계에 속한 존재임은 공표하는 의미를 갖는데, 구체적 내용은 (아)와 같다.

(아) 일일은 혼 꿈을 어드니 천상으로서 오운이 영농하고 일원 선관이 청용을 타고 내려와 말되 니는 청용을 차지한 선관이더니 익성이 무도한 고로 상제께 알외되 익성을 취죄하야 다른 방으로 귀양을 보너씨니 익성이 글노 흠심하야 빅옥누 잔취 시의 익성과 디전후 후로 상제 전의 득죄하야 인간의 낙치시미 갈 바를 모로더니 남악산 신령이 부인 덕으로 지시히기로 왓사오니 부인은 이 홀호옵소서 하고 타고 온 청용을 오운간의 방송하며 왓 일후 풍진중의 너를 다시 차질리라 하고 부인 품의 달여들거늘 (...) 주부 공중을 히히야 옥황계 사례하고 아기를 살펴보니 웅장하고 기이하다 천정이 광활하고 지각이 방원하야 초상갓튼 두 눈섭은 강산 정기 씨엿고 명월 갓탄 압가심은 천지 조화 품어스며 단산의 봉의 눈을 두 귀 밋슬 도라보고 칠성의 사인 종학 응준용안 번듯하다 북두칠성 맑근 별은 팔독의 박켜 잇고 두렷한 디장성이 압가심의 박켜스며 삼티성 정신 별리 비상에 씨 잇난디 주홍으로 삭여스되 디명국 디사마 디원수라 은은이 박켜스니 (上3-5)

위와 같은 서두의 태몽 화소는 유충렬이 유심과 장 부인의 아들이기 이전에 천상계 자미원 대장성의 후신임을 나타낸다.¹⁸⁾ 그는 탄생 순간부터 대장성이 각인된 신체 표지를 통해 ‘천인적장’임을 나타내는데, 이는 그가 부모와 구별되는 독립된 인격체이며 자신만의 고유한 인격을 확립한 상태임을 뜻한다. 자미원 대장성으로서 익성과 미진한 승부를 가리기 위해 지상계로 내려온 것이니, 유충렬이 명나라에서 유심의 아들로 태어난 이유는 그래야만 익성의 후신인 정한담을 아버지의 정적으로 다시 만나 대결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태몽 화소의 내용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유충렬에게 유심과의 혈연관계는 자아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유충렬의 몸에는 명나라 세록지신인 유심의 국가 이념이 투영된 ‘대명국 대원수’의 각인도 함께 새겨져 있다. 천상계의 시각에서 보면 유심과 유충렬의 혈연적 결속은 대장성과 익성의 대결을 촉발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만을 지니고 있을 따름이지만, 대결이 실제로 벌어지는 지상계의 삶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감당해야 하는 명나라 신민으로서의 공동운명 또한 유충렬의 자아의 일부인 것이다.

실제로, 천상계 대장성의 자아와 지상계 유심의 아들로서의 자아는 유충렬의 삶에서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얽혀 있다. 유심의 정치적 행보로 인한 아들 유충렬의 유량은 그가 부모의 품을 떠나 독자적인 삶을 영위하며 천상계 대장성의 독자적 자아를 실현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유심이 유배된 일곱 살부터 열다섯 살이 되기까지 그는 부모가 모두 죽은 줄로만 알고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보내는데, 위기 상황마다 천상계는 이인을 보내 유충

18) 인용문 (아)에 언급된 ‘청룡을 차지한 선관’이 자미원 대장성임은 다음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설 이씨의 조경의 두 신희 잇스되 혼나는 도충디장 경흔담이요, 또 혼나는 병부상서 최일귀라. 본디 천상 익성으로 자미원 디장성과 빅옥누 잔취의 디전흔 상계계 득죄하야 인간의 격강하야 디명국 황제의 신희 되야난지라’ (上5)

렬을 돕지만 도움의 결과는 항상 부모와 더 멀어져 생활 터전을 옮기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정한담이 유충렬의 집에 화재를 일으키자 장 부인의 꿈에 노옹이 현몽하여 유충렬 모자는 불길을 피해 살아나지만, 회수에서 사공이 장 부인을 납치해 모자가 분리되는 순간에는 천상계로부터 아무 도움도 내려오지 않는다. 용왕의 표주는 마철에게 붙잡힐 뻔한 장 부인을 구하지만, 결과적으로 장 부인이 도달한 곳은 산중에 은거하고 있던 이 처사의 집이었고 유충렬과 장 부인의 거리는 더 멀어진다.

어머니와 헤어진 유충렬은 강희주의 꿈에 나타난 천상계의 예언으로 인해 강희주의 사위가 된다. 이는 지상계의 관점에서 보면 유충렬이 아버지 유심의 정치적 동지인 강희주에게 귀속되는 사건이지만, 천상계의 관점에서 보면 강희주의 딸이 태어날 때 선녀를 통해 소 부인에게 예고되었던 천상계의 섭리가 실현된 사건이다.¹⁹⁾ 유충렬은 지상계 혈연 가족의 영향력 하에 머물면서 동시에 천상계 자아를 회복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후 강희주가 유심을 구하려다 유배되고 그 가족들이 흩어짐에 따라, 유충렬은 광덕산 백룡사에 들어가 도승의 제자가 된다. 백룡사에서 노승을 통해 전수받는 신이한 도술과 무기들은 그가 천상계에서의 자아를 온전히 회복하는 단계에 도달하였음을 시사한다. 전쟁터에서 정한담을 상대로 도술을 겨루는 장면의 구체성은 <유충렬전>의 서사세계가 순간 천상계로 전환됨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정한담, 즉 익성을 마주한 순간 자미원 대장성으로 화하여 신이한 도술 대결을 펼치는 모습은 유심의 아들로서의 지상계적 정체성에서 벗어나 익성과의 개인적 대결 그 자체에

19) ‘(...) 강승상이 아달은 엽고 다만 일녀을 두어난지라 부인 소씨 녀아를 나올 적의 일원 선녀 오운을 타고 내려와 소씨를 디하야 왈 소녀는 옥황 선녀옴더니 연분이 자미원 디장성과 혼가지로 잇다가 소녀를 강문의 보늬미 왓스오니 부인은 익홀흐옵 소서 흐거늘’ (上23)

집중하는 자미원 대장성의 면모이다. 유충렬은 정한담과 맞서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는 지상계에서의 명분을 거둬 내세우지만, 실제로 정한담과 싸우는 장면들을 보면 (자-1)에서처럼 정한담을 ‘천상 익성의 정신을 감춘 일대 명장’으로 평가하며 (자-2)에서 보듯이 신비한 도술 대결로 일관하는 가운데 정한담과의 승부 그 자체에 몰입하는 등 천상계의 자아로 전환되어 있다.

(자-1) 원수 크게 웃고 진전의 나서 한담을 망견하니 신장이 심여 적이요 면목이 웅장하며 황금투고의 녹포운갑의 조화를 부쳐난디 천상 익성의 정신을 흉중의 갈마쁘니 일디 명장이요 역적될 만흔지라 원수 기운을 가다듬고 신화경을 잠간 껴여 익성 정신을 쇠진케 하고 장성검을 다시 닦아 성치 찰난케 하고 변화의 은신하고 호통을 크게 하며 (下5)

(자-2) 장성검을 노피 들어 정한담을 치라더니 한담은 간 디 업고 편편 체운 이러나며 원수의 장성검의 검광이 업서지고 폐엿던 칼이 도로 살리거늘 원수 디경하야 급피 불너와 신화경을 밧비 껴여 일편을 외인 후의 장성검을 세 번 치며 풍뵝을 밧비 불너 체운을 씨러바리고 안순풍이지 조화를 부쳐 적진을 살피보니 한담이 변신하야 체운의 쓰이여 십척 장검 번더기며 원수를 찌로거늘 (...) 적진 선봉을 헛쳐 달여들 제 장디의셔 북소리 나며 난디 업난 안기 사면의 가득하고 적장이 간 디 업고 음풍이 소소하며 한설이 분분한디 지척을 모를네라 가련하다 유충렬이 적장 췌여 썩져 흥정의 드러쓰니 명지경자이라 원수 디경하야 신화경을 껴여 노코 둔갑장신하야 일신을 감초오고 안순법을 배푸러서 진중을 살펴보니 토굴을 집피 파고 그 가온디 증창검극은 삼씩갓치 버려쓰며 사히 신장이 나열하야 독흔 안기 모진 사석 사면으로 썰리면서 흥성 소리 크게 질너 흥복하라 흥난 소리 천지 진동한지라 원수 그제야 간계에 썩진 줄 알고 신화경을 다시 껴여 육경육갑을 배푸러 신장을 호령하며 풍뵝을 밧비 불너 운무를 쓰러바리니 명낭흔 청천벽일 일광주를 히롱하고 장성검은 번기 되야 적진중이 요란할 제 (下5-7)

이후 다시 지상계 부모를 상봉하였을 때, 유충렬과 부모는 서로 알아보지 못해 신체 표지와 신물을 보고 신원을 확인할 정도로 혈연의 의미가 무색해진 상태에 이른 것으로 그려진다. (차-1)과 (차-2)는 이와 같은 혈연 가족의 단절 상태를 보여준다. 호국에 인질로 잡혀가 있던 유심은 자신을 구하러 온 낯선 존재가 과연 아들 유충렬인지 확신하지 못해 죽도를 확인하고 신체를 확인한 후에야 아들임을 인지한다. 어머니 장 부인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던 아들을 좀처럼 알아보지 못한다. 그들만의 은밀한 징표로 가족 관계는 곧 밝혀지지만, 가족 상봉의 기쁨 직전에 이처럼 부모와 자녀가 서로 낯설어하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간 천상계 자아를 회복하여 독자적 삶을 살아온 유충렬이 더 이상 유심 부부의 아들이라는 혈연적 정체성으로만 규정되지 않는 존재로 성장하였음을 암시한다.

(차-1) 네가 일정 충열인야 충열이 적실커든 십년 전의 연경으로 귀양 올 적의 주던 죽장도 어디 보자 원슈 옷슬 급피 벗고 혼삼 차인 죽도를 끌너 너여 두 손의 밧드러 올이나니다 주부 일말을 듯고 토굴 문의 업세여서 손을 너여 바다 보니 소상 반죽 다섯 마디 황강 죽누를 화침으로 식여쁘니 구천의 도라간들 부자 신표 몰을손야 벌터 이러 안져 왈 이계 웬 말인야 충열이 외슈나 죽도는 보와쓰나 너 아달 충열은 가삼의 디장성이 박키고 등의난 삼티성이 잇난이라 원슈 옷슬 버셔 짜의 노코 주부 저티 안지니 주부 가삼과 등을 살펴보니 식별 갖튼 삼티성과 디장성이 두러시 박켜난디 금자로 디명국 도원슈라 번뜻하게 식여끼늘 왈각 썬여 달여드러 충열의 목을 안고 (下25)

(차-2) 이썬 부인이 쳐사를 보니고 소식을 알아 올라 만심 고디허던 차의 썬 밧기 충열이 다러왔난 말을 듯고 디경실식허야 기결허난지라 충열이 달여드러 문 압푸 복지허니 쳐사 구완허야 정신을 차린 후의 부인이 여광여취허야 혼난 말리 네가 귀신인야 너 아달 충열인야 너 아달 충열은 회슈의 일정 죽어거든 엇지 사러 육신이 온가 너 아달 충열은 등의 삼티성이 표적으로 박켜난이라 원

슈 급피 옷슬 벗고 저턱 안지니 과연 삼티성이 두려시 박켜 잇고 금자로 식인
거시 어제 본듯 완연하니 서로 부들고 방성통곡하난 정이 만리 호국의 부친 만
날 석와 비나 더흔지라 (下38)

그는 태몽에서 예고된 대로 천상계 자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혈연 가족과 분리된 독자적 삶을 살아가며 백룡사에서 도술 공부에 전념할 심신의 자유를 누리는 한편, 천상으로부터 주어진 도술 능력을 거침없이 구사하여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훼손된 황제의 통치권을 복구할 수 있게 된다. 천상계로부터 주어진 초월적 자유와 능력은 유충렬로 하여금 혈연 가족에게 얽매이지 않고 국가의 위기 상황에 응하게 하는 힘으로, 또한 국가의 위기를 넉넉히 해소하여 통치 질서를 재구축함으로써 혈육인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²⁰⁾ 앞서 살펴본 국가 가족주의의 한계와 혈연 가족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동력이 천상계로부터 공급되어 지상계 두 공동체, 혈연 집단과 국가의 대립을 해소하는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유충렬전〉의 이원적 세계관은 무엇보다도 지상계를 움직이는 천상계의 힘과 의지에 먼저 주목케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상계의 국가와 가족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통치자가 탁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질서를 통어해야 하며 피통치자 또한 혈연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야 한다. 천상계는 유충렬을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존재로 고

20) 이와 관련하여, 서두의 출생 장면에서 유충렬의 탄생을 돕던 선녀가 주고 간 실과를 유충렬과 유심 부부가 각각 하나씩 먹게 되는 서사 전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충렬이 실과를 먹는 시점은 황제 가족을 급히 구하려 가기 직전이며, 장 부인과 유심이 실과를 먹는 시점은 각각 출산 직후와 유배지에서의 고생스러운 생활 중으로 신체적 기력이 쇠하였을 때이다. 유충렬은 실과를 먹음으로써 나라의 충신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고, 유심과 장 부인은 실과를 먹음으로써 건강을 되찾고 유충렬의 부모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게 된다. 이는 천상의 실과가 국가 가족주의를 실현하는 도구인 동시에 혈연 가족주의를 뒷받침하는 상징이기도 함을 시사한다.

양시킨다. 유충렬은 천상에서 유래한 초월적 도술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에 국가의 통치 체제를 정상화할 수 있었고, 천자의 통치권을 지지하는 역할을 자처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천상의 자아가 이끄는 대로 부모와 일찍이 헤어져 독자적 삶을 살아온 까닭에 국가의 재난 상황에서 선뜻 나설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유충렬의 초월적 능력은 기존의 국가 권력이 보유하지 못하였던 강력한 공적 질서를 상징하며, 그의 자유로운 개별자 의식은 혈연 중심주의에 밀려나 힘을 잃고 있었던 공적 의식을 표상한다. 이러한 공적 질서와 의식을 지상계에 구축하는 과정은 유충렬이 천상계 대장성의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을 통해 실현된다.²¹⁾ 유충렬에게 천상계 자아를 되찾는 일은 낮설면서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는 지상계 국가와 혈연 집단의 쇄신 또한 기존의 한계를 탈피해야 하는 낮설고 어려운 일인 동시에 당위적 과제임을 형상화한다.²²⁾

동시에 이원적 세계관은 천상계의 힘이 지상계를 통해서만 실체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지상계의 독자적 질서에도 의미를 부여한다. 특정 국가와

21) 심우장(2003), 앞의 논문, 312~312쪽에서는 <유충렬전>의 천명(天命) 의식이 당대 지배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교정하는 기준인 보편 이데올로기를 상징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관점은 <유충렬전>의 이원적 세계관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지상계의 변혁에 있음을 주장하는 점에서 본고의 관점과 상통한다.

22) 고전소설의 적장 화소는 본래 불교의 전생응보 관념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후대로 가면 불교적 응보관보다 유교의 천인감응 사상에 더 가까워지는 변화가 나타난다. 시간적 관념인 응보론이 공간적 관념인 이원론으로 옮겨지면서, 하늘을 감응케 하는 인간의 능동적 의지와 현세적 삶의 가치가 보다 강조된다. (전성운, 「『소문록』에 나타난 응보관의 특징과 의미」, 『한국민족문화』 2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3, 185~190쪽.)

부처에 대한 발원과 보시를 강조하는 <소대성전>이나 <장풍운전>에 비하여 <유충렬전>이 나타내는 이원적 세계관은 불교적 전생 관념보다 유교적 천(天) 관념의 영향을 더 강하게 보인다. 전생응보의 논리에 따르면 전생에서 싸움을 벌인 죄로 적장한 대장성이 현생에서 의성과 계속 대결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천상의 힘이 인간 세계의 변화 의지를 뒷받침한다고 보는 천인감응의 관점에서 보면 유충렬의 투쟁은 작품이 지향하는 바가 지상계 현실의 개선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혈연 집단에 속하여 그 내부의 한계를 감내하는 지상계의 자아는 당대 조선의 현실을 투영하는바, 탈피의 대상이면서도 천상계 자아와 공존하며 대장성의 의지가 지상에서 관철될 수 있게 한다. 아버지를 대신해 정적에게 복수하는 아들의 도리에 충실하고, 천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 충심을 다해 구하는 신하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 정한담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유충렬은 비로소 의성과 맞서 싸우는 대장성의 자아를 되찾아 천상계의 능력과 자유를 발휘할 수 있었다. 이는 충과 효라는 기존의 이념을 충실히 이행하여 모든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윤리적 토대를 마련한 위에서 공동체의 변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던 것이 당대 독자들의 현실 인식이었음을 암시한다. 결국 〈유충렬전〉에서 이원적 세계관의 함의는 두 자아의 공존을 통해 공동체의 지속과 변화를 동시에 지향하는 데 있는 것이다.²³⁾

〈유충렬전〉은 열강의 패권주의에 휘말려 조선 왕조가 국권 상실의 위기에 처하였고, 혈연에 근거한 세도정치의 폐단 또한 가중되어 가던 19세기 말에 널리 읽혔던 작품이다. 이 시기는 지배층의 무능함으로 인한 외세의 국권 침탈로 개별 혈연 가족들의 삶을 피폐해지고, 혈연에 밀착된 세도정치의 폐해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되어 두 집단이 모두 존재 의의를 잃어가고 있던 때였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에서 독자들은 지켜내야 할 가족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유충렬전〉을 통해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²⁴⁾

23) 이상구(1995), 앞의 논문, 74~83쪽에서는 지배 이념인 ‘충’의 가치 내세워 통치자의 모순을 공박하고 변혁하는 것이 〈유충렬전〉에 반영된 향유층의 현실 인식이라고 보았다. 기존의 공동체적 가치에 의지하여 현실 변혁의 도덕적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작품에 구현된 현실 대응 방식이라고 본 것이다.

24) 이상구(1995), 위의 논문, 59쪽에서는 19세기 말 통치권의 부패와 서구 열강의 군사적 침략으로 인한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유충렬전〉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관점에 공감하되, 국가의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혈연 집단의 체신도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며 나아가 국가와 혈연 집단의 바람직한 상호 관계에 대한 모색까지도 작품에 담겨 있다고 보았다.

물론 작품 수용의 지평은 독자마다 달랐을 것이기에, <유충렬전>이 제시하는 긍정적인 미래상이 항상 온전히 독자에게 포착되었으리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유충렬전> 수용은 어떤 독자에게 국가 공동체의 쇄신을 추진하는 동력으로도, 또 다른 독자에게는 혈연 공동체에 대한 고착을 강화하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²⁵⁾ 어느 경우든 국가와 혈연이 ‘나’에게 의미하는 바를 묻고 답하며 그 결과를 실행하게 하는 텍스트로서 <유충렬전>은 독자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4. 결론

<유충렬전>은 연구사가 두텁게 쌓여 있는 작품으로, 국가와 가족의 긴 항 관계를 중층적으로 조명하는 주제의식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가와 가족의 문제를 다루는 서술시각의 궁극적 지향과 에 대해 좀 더 정밀한 탐색을 시도하였다. 특히 ‘가족’이라는 개념이 국가주의와 혈연주의의 양측으로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유충렬전>이 지향하는 가족주의의 성격을 입체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이를 형상화하는 장치로서 이원적 세계관의 서사적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유충렬전>은 국가 가족주의와 혈연 가족주의를 모두 지양하며 양자의 상보적 통합 가능성을 모색한 작품으로서, 인물군마다 상이한 심리와 행적을 통해 국가 가족주의와 혈연 가족주의의 한계를 두루 묘화하

25) 강문중, 「일제시대 <유충렬전>의 수용 양상」, 『고소설연구』 31, 한국고소설학회, 2011, 337~346쪽에서 그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 암송될 정도로 널리 유통됐던 <유충렬전>은 20세기 초 일부 독자에게는 항일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구국 서사로, 일부 독자에게는 혈연 가족 간의 사적 복수를 추동하는 서사로도 수용되었다는 것이다.

는 한편 인물군 간의 괴리를 매개해 줄 수 있는 주인공의 자질을 구체화함으로써 국가와 혈연 가족의 동시적 변화 가능성을 모색한 성과를 담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아울러 천상계와 지상계를 아우르는 이원적 세계관을 통해 변화와 지속의 균형 감각을 담지한 것을 이 작품의 독특한 성취로 보았다.

국가와 가족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기에 직면하였던 19세기의 역사적 상황에서 〈유충렬전〉은 현실의 한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변화의 희망과 조건을 탐색하는 일정한 문학적 성과를 거두었다. 〈유충렬전〉이 제기하는 공동체의 문제들은 현재에도 유효하며, 국가의 경계가 도전받고 혈연 가족의 존속 여부가 의문시되는 오늘날의 맥락에서 작품의 물음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공동체의 지속과 변화를 고민하는 오늘날의 독자에게 〈유충렬전〉이 제시하는 현재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은 후속 연구에서 별도의 주제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유충렬전> 상·하(완판86장본), 김동욱 편, 『영인고소설판각본전집』 2, 인문과학연구소, 1973.
- 강문중, 「일제시대 <유충렬전>의 수용 양상」, 『고소설연구』 31, 한국고소설학회, 2011, 327~357쪽.
- 김경호, 「한국사회의 ‘가족주의’ 담론과 ‘유교 가족주의’에 대한 성찰」, 『민족문화연구』 8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0, 391~413쪽.
- 김동춘, 「유교와 한국의 가족주의 -가족주의는 유교적 가치의 산물인가?」, 『경제와 사회』 55, 비판사회학회, 2002, 93~118쪽.
- 김서윤, 「고소설의 이원적 세계관과 관계주의 문화」, 『선정어문』 51(김종철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2022, 29~46쪽.
- 김현양, 「<유충렬전>과 가족애」, 『고소설연구』 21, 한국고소설학회, 2006, 311~334쪽.
- 박일용, 「<유충렬전>의 서사구조와 그 소설사적 의미 재론」, 『고전문학연구』 8, 한국고전문학회, 1993, 265~296쪽.
- 백광렬·이상직, 「사사노 미사에, 「한국의 가족주의와 가족 관념: ‘사회결합론’의 관점」, 『한국사회학』 52(4), 한국사회학회, 2018, 115~159쪽.
- 서유석, 「판소리 서사에 나타나는 가족주의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6,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23, 5~38쪽.
- 서인석, 「고전소설의 결말구조와 그 세계관: 홍길동전·구운몽·군담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1~199쪽.
- 신재홍, 「<유충렬전>의 감성과 가족주의」, 『고전문학과 교육』 2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169~193쪽.
- 신현순, 「장풍운전의 불교 사상적 성격」,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9쪽.
- 심우장, 「<유충렬전>의 담론 특성과 미학적 의의」, 『관악어문연구』 28,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3, 289~326쪽.
- 이상구, 「<유충렬전>의 갈등 구조와 현실 인식」, 『어문논집』 34,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5, 57~93쪽.
- 이정원, 「복수의 서사로 읽는 영웅소설 -<유충렬전>과 <조웅전>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86, 국어국문학회, 2019, 169~197쪽.

- 전성운, 「『소문록』에 나타난 응보관의 특징과 의미」, 『한국민족문화』 2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3, 167~193쪽.
- 최우영, 「조선시대 국가 사회관계의 변화와 가족주의의 기원」, 『가족과 문화』, 18(1), 한국가족학회, 2006, 1~32쪽.
- 최재석,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현음사, 1994, 1~212쪽.
- 황지현, 「전쟁을 거친 공동체의 재탄생과 회복 서사, 〈유충렬전〉」, 『한국고전연구』 67, 한국고전연구학회, 2024, 309~335쪽.

ABSTRACT

Familism and Dualistic Worldview in *Yuchungryuljeon*(劉忠烈傳)

Kim, Suh-yoon

Yuchungryuljeon(劉忠烈傳) is regarded as a work that gives priority value to family unity and prosperity. The view that family narratives have their own status separated from national narratives can be seen as influenced by the blood-familism of modern standards, which distinguishes them from the state-familism of traditional society, which regarded family and state as harmonious coexistence.

Both blood-familism and state-familism are supported in *Yuchungryuljeon*, and the priority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s. Through the loyal patriarchal figures such as Yusim and Kangheeju, the belief in state-familism is promoted as a positive value, but the negative view of its realistic helplessness is also revealed. Through female characters such as Mrs. Zhang and Mrs. So, the realistic utility of blood-familism is revealed, but the risk of conflict and division caused by it is bounded. The two types of characters reflect the limitations of state-familism and blood-familism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 specialty of *Yuchungryul* is due to the fact that he is a person with dual identity who lives both in the heavenly and earthly worlds. The celestial self gives *Yuchungryul* an independent personality that transcends blood relations and the basis of a powerful ruling ability that enables the reconstruction of the state. Through the abilities and freedoms given by the heavenly world, *Yuchungryul* breaks the limits of the terrestrial state and the blood group and promotes a change that integrates the two types of familism.

In *Yuchungryuljeon*, the coexistence of the heavenly world and the earthly world is interpreted as a product of a sense of balance that aims to change reality and continue its existing value. In the situation of the

19th century when the crisis of nation aggravated burden of blood family and the abandonment of politics based on bloodshed worsened crisis of the state, the meaning of the state and the blood family was challenged and the means of recovering the state and blood family was asked by novel readers, to which *Yuchungryuljeon* contains the result of exploration.

Key Words *Yuchungryuljeon*, state-familism, blood-familism, dualistic worldview, continuity and change

논문투고일: 2025.01.21.

심사완료일: 2025.02.10.

게재확정일: 2025.02.11.

